

삼성전자, 생활가전 ‘속도 혁신’... “세탁·건조 69분 완료”

2026년형 비스포크 AI 콤보 출시
진동소음 저감 등 AI 기능 고도화
신혼부부 특별 구독 서비스 마련

“2026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 25kg·건조 20kg의 국내 최대 용량을 구현하고, 세탁·건조 시간을 69분으로 단축했다.”

성종훈 생활가전(DA)사업부 상무는 26일 서울 삼성 강남에서 열린 일체형 세탁건조기 ‘2026년형 비스포크 AI 콤보’ 출시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열교환기에 ‘부스터 열교환기’를 추가 적용해 제습 효율을 높이고 단독 건조기에 준하는 성능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모델에는 히터를 활용해 건조 초기에 내부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켜 효율을 높이는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건조 방식에서 한단계 진화한 ‘프리히트’ 방식이 적용됐다. 새로운 프리히트 방식은 세탁 탈수 단계에서부터 내부 온도를



(왼쪽부터)성종훈 DA사업부 상무, 임성택 한국총괄 부사장, 김용훈 한국총괄 CE팀장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에서 열린 2026년형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출시 미디어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높여 더 신속한 건조를 구현한다.

겨울철 건조 성능 저하 문제에 대한 개선도 강조했다. 성 상무는 “비스포크 AI 콤보는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히팅 기술을 통해 온도가 낮음을 감지하면 미리 콤프레셔를 예열하여 겨울철에도 건조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을 혁신적으로 보완했다”고 했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으로 한

총 고도화된 ‘빅스비’도 탑재됐다. 사용자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제품을 제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옷감의 무게와 종류, 오염도를 감지해 최적의 세탁과 건조를 알아서 수행하는 ‘AI 맞춤+’ ▲바닥을 감지해 고속 회전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최적화하는 ‘AI 진동소음 저감 시스템’ ▲세탁, 건조가 끝나면 자동으로 문



2026년형 비스포크 AI 콤보. /차현정 기자

이 열려 내부의 습기를 배출, 냄새 걱정 없는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오도 오픈 도어+’ 등 차별화된 기능을 두루 갖췄다.

삼성전자는 특히 신제품을 앞세워 신혼가전 시장 공략에 나선다. 신혼부부 맞춤형 혜택을 확대해 AI 가전 구매 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 구독 서비스도 마련했다. ‘AI 구독클럽’으로 혼수 가전을 구독한 신혼부부 대상으로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해 평일 저녁이나 주말 등 원하는 시간에 맞춰 가전을 설치할 수 있는 맞춤 설치 서비스 ▲이사 후 재설치 등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전에는 냉장고·TV가 신혼가전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세탁건조기로 바뀌고 있다”며 “혼수 시장을 적극 공략해 삼성전자의 AI 가전을 더 빠르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부사장은 “소비자들이 세탁기 제품 중 콤보를 선택하는 비중이 2024년 35%에서 지난해 46%, 올해는 6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제품은 색상은 다크스틸, 실버스틸, 그레이지, 화이트, 블랙캐비어 등 5가지로 출시된다. 가격은 사양에 따라 319만 9000원~429만 9000원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구광모, AX 실행 강조... “빠르게 성과 축적”

(LG그룹 회장)

LG그룹 사장단 회의

그룹 미래 성장축으로 ‘AX’ 지목
경영진 주도 구조적 혁신 가속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인공지능 전환(AX)을 미래 성장축으로 지목하고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26일 LG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시 중구 남산리더십센터에서 주요 계열사 사장단 40여 명이 참석한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경학적 불안 고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수(常數)가 된 상황에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미래 체력’을 기르기 위한 전략적 해법을 모색했다.

구 회장은 AI에 의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전기와 인터넷의 도입에 견주며 “AI는 단순히 효율성과 생산성을 개선시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남산리더십센터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는 도구가 아닐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이며,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이 필요하기에 사업의 임팩트

가 있는 곳에서 작은 것이라도 빠르게 실행해 성과를 축적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AX는 특정 조직만의 과제가 아닌, CEO와 사업책임자가 직접 방향을 잡고 이끌어야 할 과제”라며 사장단의 분명한 선택과 강력한 실행을 주문했다.

사장단은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현재의 효율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AX를 미래 경쟁력의 본질로 규정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 핵심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LG 사장단은 경영진 주도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신속한 실행을 바탕으로 설계부터 생산, 마케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AX를 활용한 구조적 혁신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

정기선 회장, 베트남 현장경영 ‘구슬땀’

(HD현대)

현장 설비·안전 시설물 점검

HD현대는 정기선 회장이 지난 24~25일 베트남을 찾아 HD현대베트남조선과 HD현대에코비나를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회장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현장경영 행보다.

정 회장은 지난 24일 베트남 중남부 칸호아성에 위치한 HD현대베트남조선을 방문해 야드를 둘러보고, 건조 중인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공정을 점검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 공정 준수율과 작업상 애로사항을 물었으며, 작업장 안전관리도 당부했다.

이어 25일에는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남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HD현대에코비나를 찾았다. 탱크 제작 공장 건설 현장과 항만 크레인, 액화천연가스(LNG) 모듈 생산 공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 점검과 위험 요인 발굴에 나섰다.

정 회장은 또 현지 파견 임직원들과



HD현대 정기선 회장이 지난 25일 베트남 중남부에 위치한 HD현대에코비나를 찾아 현장 설비와 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HD현대

점심을 함께 하며 타지 생활의 고충을 듣고, 회사 발전을 위해 힘쓰는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정 회장은 “회사 경영의 기본은 현장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도 현장에 있다”며 “현장에 대한 고마움을 늘 잊지 않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찾아 여러분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포스코, ‘산업가스 풀 밸류체인’ 윤곽... 신규사업 본격 추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반 진출

포스코가 오는 4월 전남 광양 공장 준공을 계기로 희귀가스 풀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내며 산업가스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철강을 넘어 반도체·우주항공·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전반에 필요한 가스 생산·공급 기반을 확보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모습이다.

포스코는 제철소 운영 과정에서 산업가스 수요가 크다는 점에 주목해 산소공장을 제철소 내부에 설치·운영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21년 산업가스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지

난 2022년에는 국내 유일의 크루드(Crude) 희귀가스 내온 생산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산업가스사업부를 독립 조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특수가스 시장에도 진입했다.

일반가스 분야에서는 공기분리장치(ASU) 2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소·질소·아르곤 등을 제철소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포항 영일만산단 내 5000평 부지에 신규 ASU와 저장설비를 구축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 대상 공급을 시작했다.

희귀가스 분야에서는 지난 2024년 8월 ‘포스코스타이어어솔루션’을 설립했다.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광양 공장은

제철소 대형 ASU에서 생산되는 크루드 희귀가스를 공급받아 고순도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다. 완공 시 국내 반도체 시장 수요의 절반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반도체 특수가스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캄보디아 지분 100%를 인수하고 퓨엠 지분 40%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사염화규소(SiCl4), 프로필렌(C3H6), 저메인(GeH4), 인산(H3PO4) 등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RIST)과 협력해 특수가스 및 반도체 소재 개발도 추진 중이다.

/유혜은 기자

대한항공, AI 기반 무인기 개발 속도

‘아음속 무인표적기 개발 과제’ 회의

대한항공이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고속 무인표적기를 활용해 군집제어 및 임무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무인기 개발에 속도를 낸다.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방위사업청, 해군, 공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음속(음속 이하의 속도) 무인표적기 국산화 개발 과제’ 체계요소조건검토 회의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음속 무인

표적기 기체, 조종·통제 장비, 발사대 등 핵심 구성품을 국산화해 해외 구매 표적기를 대체하는 목적의 방사청 과제를 수주한 후 4개월간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이 무인표적기는 국내 최고 수준인 시속 약 735km급의 비행 성능을 확보했다. 대한항공은 2027년까지 시제기를 출고하고 초도 비행을 완료해 오는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해 군집제어 및 임무 자율성을 높이고 임무별 센서와 장비를 모듈화해 장착·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기술을 적용한다.

/양성운 기자